

광주,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메카로 뜬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작 지원...EBS 방영 잇따라 지역 기반 콘텐츠기업 창작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 파이어로보Z·기가빌더 3월 편성...“부가가치 창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의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광주가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GICON이 제작을 지원한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연달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을 확정하며 지역 기반 콘텐츠 기업들의 창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GICON은 오는 3월 2일 2024년 CG활용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스튜디오

오버튼의 애니메이션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가 방영된다고 밝혔다.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는 2016년 EBS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키즈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이다. 화재·재난·생활 안전을 주제로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며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신작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는 광주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오버튼

과 EBS, 인도 LNL VFX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고 ㈜로간벤처스가 투자했다. 또, GICON의 2024년 CG활용프로젝트 제작 지원 과제로 선정돼 기획력과 작품성을 공인받았다.

GICON 지원을 통해 제작된 또 다른 TV 애니메이션 '기가빌더'도 오는 3월 4일 오전 7시 30분 EBS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기가빌더'는 GICON의 '2020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파일럿 콘텐츠 제작 지원'과 '2021 레벨업 프로젝트 제작지원'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본편 제작까지 지원받았다.

파일럿 제작을 거쳐 본편 제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지상파 및 어린이 전문 채널 편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처럼 연속된 방송 성과는 단순한 지역 콘텐츠 제작을 넘어, 광주가 체계적인 제작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본과 인프라 집중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기회를 넓혀가는 점이 주목된다.

또,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완구, 극장용 애니메이션, 웹툰 산업 전반에서도 성장 흐름과 함께 다양한 분야

로 진출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진흥원이 지원한 ㈜캠파이어에 니웁스의 '레인보우 버블렘 시즌2'는 지난해 4월 EBS에서 방영돼 큰 주목을 받았으며, 어린이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마법과 모험이라는 흥미 요소를 강화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수출됐으며 올해는 유럽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레인보우 버블렘'의 IP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완구 기업과 중국 완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콘텐츠 산업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실증했다.

또, ㈜비에스가 제작한 웹툰 'AI폰 아리랑'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B2B 라이선싱 전문 전시회에서 현지 콘텐츠 기업과 IP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광주지역의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점차 자립적인 성장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GICON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은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방송, 상품화, 유통,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순히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 발굴·교육, 마케팅·홍보·판로 확보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창작 기업들이 독자적인 IP(지식재산권)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돕고 광주가 단순한 창작의 도시를 넘어,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 디스플레이 SV그라운드에서 15개 지역대학교와 '2026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로컬콘텐츠'로 지역 경제에 활력

등신대 등 15개 지역 대학과 협약...협력체계 구축 청년 로컬창업가 육성·지역 브랜드 고도화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대학들이 청년 로컬창업가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 디스플레이 SV그라운드에서 15개 지역대학교와 '2026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고유 자산과 특성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산업을 결합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과 협력해 지역 기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진공과 15개 지역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반 로컬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등과 연계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생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창업 연계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참여 대학들은 로컬창업 관련 교과과정(마이크로디그리, 석사 등 학위취득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실습·체험형 비교과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로컬 창업 아이템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한다.

인테연 소진공 이사장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의 자신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성장 전략이다"며, "대학이 가진 연구·교육 역량과 지역 현장이 가진 생생한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콘진원, AI 콘텐츠 산업 육성에 198억 투입

진입형·선도형·협력형 3개 분야 맞춤형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4일 인공지능(AI)을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작 지원은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진입형, 선도형, 협력형 3개 유형으로 구분에 추진한다.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해 초기 진입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콘진원은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법률·저작권·사업화 상담과 전문가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높이고, 성과가 안정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글로벌

광주경총, 3월 금요포럼 인문·글로벌 아우른다

나태주·김병원·조명진 초청
삶 성찰·글로벌 정보 공유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인문학과 글로벌 정세를 아우르는 3월 금요포럼을 마련했다.

광주경총은 3월 한 달간 시인과 농업·협동조합 전문가, 유럽 정세 전문가를 잇따라 초청해 금요포럼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 13일에는 나태주 시인이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나 시인은 제43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공주문화원과 충남시인협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서정시인이다.

20일에는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매력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회장은 제23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농협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농업·협동조합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7일에는 유럽 전문가인 조명진 박사가 '유럽 정세 심층 브리핑'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런던정경대학(LSE) 박사 출신인 조 박사는 유럽연합(EU) 집행 이사회 안보 자문역과 스웨덴 국방연구소,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등에서 활동한 국제 안보·외교 분야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유로피안 판도라', '하이-휴머니즘' 등이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3월 강연은 시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공감과 감사의 태도를 배우는 한편, 유럽 진출 기업에 도움이 될 글로벌 정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자리"라며 "지역 기업의 인문적 소양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